

■ 배당락 기준가격

배당락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공식은

$$\text{① 보통주기준가격(배당락 조치 후)} = (\text{보통주 종가} \times \text{보통주 주식수}) / \text{배당 후 보통주 주식수} \quad \text{②} \\ \text{우선주기준가격} = \text{배당전 시가총액} / (\text{배당후 우선주 주식수} - [\text{배당후보통주식수} \times (\text{보통주 종가} / \text{우선주 종가})])$$

그러나 현금배당을 하는 기업은 배당락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변화가 없다.

단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락이 없어졌으므로 주식배당에 대해서만 배당락이 이루어진다. 배당락은 26일 종가와 주식배당률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올해의 매매가 끝나야 정확한 배당락 기준가격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현재 주가수준을 감안해 미리 배당락 기준가격을 예상해 볼 수는 있다.

보통주만 상장된 경우 배당락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은 '보통주 기준가격(배당락 조치 후) = (26일 보통주 종가 × 26일 현재 보통주 주식수) / 배당 후 보통주 주식수'다.

주식배당 실시 전과 후 시가총액에 변동이 없도록 주가를 조정하는 것이 배당락 조치인 셈이다. 예를 들어 연말 폐장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5000원이며 발행주식수가 100만주인 A종목이 10% 주식을 배당하면 배당락을 계산해 보자 이 회사의 연말 시가총액은 50억원이다.

주식배당을 실시한 뒤 이 회사 발행주식수는 110만주로 늘어나지만 시가총액은 50억원을 유지해야 하므로 보통주는 주당 4545원으로 조정돼야 한다. 따라서 배당락을 실시한 뒤 주가는 4545원이 되는 것이다. 배당락 기준가격은 새해 첫거래일의 기준가격이 된다.